

Rotary Social Enterprise

로타리 사회적공헌기업 05



HOTEL PRIMA
SEOUL

호텔 속에 뮤지엄 문화와 예술로 가치를 높인 브랜드 전략

호텔 프리마는 지난 1988년 청담동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규모로 개관했다. 호텔 프리마는 개관 이후 30여 년간 꾸준히 성장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다. 특히, 1999년 현재의 이상준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고, 2004년 재개관에 가까운 리노베이션 및 리모델링을 통해 2005년에 특급 호텔로 승격됐다.

이와 함께 호텔 프리마는 '뮤지엄 속에 호텔, 호텔 속에 뮤지엄'이라는 모토로 예술문화서비스에 집중하여 고객에게 감동과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품격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호텔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아트경영으로 2009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스포츠 콤플렉스 프리마 조디악의 위탁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이어 2013년에는 서울 중구에 비즈니스호텔인 호텔 아로파의 문을 여는 등 탄탄한 성공을 이뤄왔다.

“우리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들과 근현대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철학과 애정을 가진 이상준 대표이사님이 해외 곳곳에서 환수해 온 우리의 도자기부터 선조들의 삶이 스며있는 가구들입니다.”

호텔 프리마는 2007년 호텔 별관에 '갤러리 뮤지엄'을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10여년 동안 고미술 전시에서부터 신진 유명작가의 전시까지 이뤄졌다. 갤러리 뮤지엄은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왔다. 예술과 전통, 문화를 기업의 경영에 접목하는 방식은 고객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술관계자와 평론가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조선일보 주최 미술인들이 선정한 '미술품이 좋은 건물 Best 5'에 오르기도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문화산업대상 기업부문대상의 영광도 얻었다. 호텔 프리마 김영태 상무는 “호텔 프리마는 순수 국내 토종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호텔산업 발전과 전세계적인 K-MOVE 열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호텔 프리마 상무 김영태

예술로 교감하고 문화로 소통하다
서비스에서 봉사로
고객에서 가족으로



섬김의 경영, 사회와 소통하다

호텔 프리마는 경영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 독립군 자녀 돕기 사업, 사할린 동포 고려인 돕기 사업과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등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로타리 사회적 공헌기업으로서 한 걸음 더 지역사회와 고통 받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를 마쳤다.

“호텔 프리마는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연말연시 소외계층 나눔 활동과 문화예술 후원과 지원, 임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김영태 상무는 호텔 프리마의 기업 철학과 핵심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텔 프리마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호텔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경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훌륭한 서비스는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

기 마련입니다.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우리 호텔의 기업철학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단순한 만족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김영태 상무가 말한 호텔 프리마의 기업철학은 2013년 개관한 호텔 아로파의 이름에도 담겨있다. 아로파는 솔로몬 제도의 섬 중 하나인 아누타섬의 정신을 뜻한다. 그 곳의 삶의 가치인 ‘나눔의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다. 호텔 프리마는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 이타심과 인격 수양 등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길 꿈꾼다.

“다른 호텔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 된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공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호텔 프리마의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김영태 상무의 다짐은 호텔 프리마가 앞으로 변화해 갈 모습을 보여주었다. ☺



▶ 호텔 프리마 임직원들